



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을 넘어서다

-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제 2차 독일 방문 (8월 12일~ 8월 24일)

이옥선 할머니는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고 있다. 그녀의 나이 14살,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 노예가 되어 고문당하고 어린 나이에 불임이 되고 말았다. 베를린, 드레스덴, 울름과 뮌헨을 방문하는 이번 여정은 87세가 된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.



이옥선 할머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가 된 20만명의 어린 소녀들 중 하나였다. 이 소녀들은 군인들에게 성적인 '일'을 통해서 위안을 준다는 명목으로 '위안부'라고 불렸다. 일본군은 항복한 이후 이들을 외국 땅에 그대로 버려뒀다. 이옥선 할머니는 2000년이 돼서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. 한국에서 할머니는 사망신고가 돼 있었다.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진실한 사과도,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.

사진: 이옥선 할머니 (야지마 츠카사)

"문득 나는 깨달았습니다.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, 바로 일본의 책임자라는 것을요. 나는 수치심을 이겨낸 이후로 제가 겪어야 했던 운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떤 어린 소녀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."

* 이옥선 할머니 독일 (베를린, 드레스덴, 울름, 뮌헨) 방문 일정

1. 베를린

- 침묵 시위 / 8월 14일 16:00 ~ 18:00 / 브란덴부르거 문
(일본 여성회 주관 카지무라 미치코: michikoki@arcor.de)
- 평화 페스티벌 / 8월 14일 ~ 17일 / 알렉산더플라츠

페스티벌 기간 동안 상시 전시 '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' - 전시 오프닝 / 8월 14일 19:00 부터
다양한 만화작품, 설치, 증인의 작품 및 퍼포먼스 (큐레이터 장규리, 코리아협의회)

무대 프로그램: 일요일 15:00 ~ 18:00

- 15:00 ~ 15:15 사물놀이패 "두들소리" 공연
- 15:15 ~ 16:15 토론회, '한반도 분단 61년, 무엇이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이 되는가'
- 16:15 ~ 16:45 행위예술가 공연, '위안부' (카즈마 글렌 모토무라)
- 16:45~ 18:00 위안부 피해자 증언회 "(이옥선 할머니)

무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 전시 “나를 잊지 말아주세요!” 마무리 행사

2. 드레스덴 : 8월 18일 월요일 12:00 ~

- 이옥선 할머니 프라우엔 교회 방문 및 Feydt 목사님과 담화
장소: 프라우엔 교회, Georg-Treu-Platz 3, 01067 Dresden
연락처: Tel.. 0351-656 06 111, sfeydt@frauenkirche-dresden.de

3. 울름 : 8월 22일 금요일 16:00 ~ 18:00

- 이옥선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증언회,
장소: '전쟁의 얼굴' 행사, Stadthaus Ulm, Münsterplatz 50, 89073 Ulm
(<http://www.stadthaus.ulm.de/stadthaus/aktuell.128468.htm>)
연락처: Frau Dr. Sabine Presuhn, 07 31 161 77 52, s.presuhn@ulm.de,

4. 뮌헨 : 8월 23일 토요일 16:00 ~ 18:00

- 이옥선 할머니 증언회 '여성의 미래를 위해 치욕을 넘어서다'
장소: Im Alten- und Service-Zentrum Fürstenried, Züricher Straße 80, 81476 München
<http://www.asz-fuerstenried.de/>
연락처: 양미화 뮌헨 한인회장. 0179/17610140439 muenchen.haninhoe@hotmail.com

행사 공동 협찬 및 후원



방문 프로그램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연락 요청!

할머니와의 개인적인 인터뷰 약속은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도시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.

이옥선 할머니 독일 방문 관련 행사 진행 및 연락처

<코리아 협의회> Rostocker Straße 33, 10553 Berlin - 030-3980 5984/5, www.koreaverband.de - mail@koreaverband.de 한정화 0179-5782 888 김진향 0160-90255981